

청년 문화예술인 현장 목소리 듣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전주 방문... 김윤덕 국회의원 참석 지역 예술인과 간담회 가져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역 청년들의 현장소리를 토대로 시각 및 문화정책 발굴, 지원사업 개선방향 제안을 받기 위해 전주를 찾았다.

전주시는 '문체부 2030' 자문단장 최수지, 전주지역 청년 문화예술인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시간여행카페' 행원에서 간담회를 지난 23일 마련했다.

이날 참석한 전주지역 청년 문화예술인들은 박 문체부 장관에게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에 이야기 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역 청년들의 현장소리를 토대로 시각 및 문화정책 발굴, 지원사업 개선방향 제안을 받기 위해 전주를 찾았다.

간담회 장에는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도 참석해 청년 예술인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며 '청년 문화예술인, 문체부 관계자, 전주시 관계자'들이 함께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원 정책 등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와 함께 한지의 우수성을 알리고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한지산업 지원센터에서 제작한 한지 플랜카드, 베너가 사용돼 눈길도 끌었다.

전주시는 젊은 예술인들을 포함한 전주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유휴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공간을 마련하는 등 전주형 청년예술인 활동 및 예술인 창작자원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관련해 팔복동 폐공장을 예술가와

시민, 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시킨 '팔복예술공장'이 지난 19년 개관해 꿈꾸는 예술터와 창작스튜디오 레지던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노송예술촌의 대표적인 예술공간인 '놀라운예술터, 뿔뿔의 미술관'도 운영 중이다.

시는 향후 완산동 유휴시설을 활용한 '예술공간, 완산벽커 1973'과 옛 남부시장 원예공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문화공관장 작당', 서학예술마을 내 '서학예술복합문화센터' 조성 등이 내년에 완료되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공간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배원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주시 문화예술의 미래를 만들어 갈 청년 문화예술인들의 현장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누구나 어디서든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도시 전주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문화예술과 체육, 관광 등 소관 각 분야에서 청년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일자리·교육·창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공개모집을 통해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 체육 등 문체부 소관 정책 현장에서 활동하는 만39세 이하의 청년들로 구성된 '문체부 2030 자문단'을 발족한 바 있다.

/김영태 기자

“세금 고민, 마을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전주시, 영세사업자 등 대상 재능기부 상담 지원

전주시는 시민들 생활 속 세금 고민 해결을 돕기 위해 마을세무사제도를 통해 세무상담서비스를 지원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영세사업자 등 평소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에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상담을 하는 제도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전주시 누리집(www.jonju.go.kr), 완산·덕진구청 세무과, 35개 동 주민센터 등에 비치된 홍보자료와 민원콜센터 등에서 담당 마을세무사를 확인한 후, 전화 팩스 이메일로 상담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영세사업자와 농어촌 주민 등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것으로 5억 원 이상

의 재산보유자나 일정 소득 이상의 사업자는 상담을 받을 수 없으며, 세무신고대행 서비스도 제공되지 않는다.

이에 시는 2016년부터 운영해온 마을세무사 제도를 통해 그동안 1100건의 지방세 및 국세 관련 세무 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강재원 세정과장은 “내년에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확대 시행해 세무 상담이 필요한 시민들이 세금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현재 마을세무사 25명을 위촉하고 있으며, 동별 마을세무사 연락처는 전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아영 기자

전주시 치매안심센터, 조호물품 확대 지원

전주시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조호물품(위생소모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에 최초 등록 시 1회만 제공받은 기저귀와 물티슈, 요실금 팬티, 미끄럼방지 매트, 미끄럼방지 양말 등의 조호물품을 모은 대상자가 매년 지원반도록 확대할 계획이라고 지난 23일 밝혔다.

그동안 치매환자에게 제공되는 조호물품은 앞으로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매년 일부물품을 지급 받을 수 있어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치매안심센터는 제공되는 조호물품 3종 꾸러미로 초기·경중·중증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

다. 조호물품 중 기저귀와 물티슈, 방수 매트 등 부피가 큰 물품은 택배서비스를 실시하고 그 밖에 물품은 어르신이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치매 진단자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며,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해 치매환자 등록 후 신청하면 된다.

등록을 위해서 처방전(치매 상병코드 기재)과 신분증이 필요하며, 환자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지참 후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치매환자와 가족에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여 치매 걱정 없는 건강한 전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아영 기자

시민 불편 해소 위해 밤샘 제설작업 벌여

전주시, 장비·인력 등 총동원 실시

전주시는 눈길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비·인력 등 총동원해 밤샘 제설작업을 했다.

시는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사용 가능한 제설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주요 도로에 민방의 준비를 했다.

이번 제설작업에는 군부대도 함께하며 전주시민 모두가 동참해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도했다.

이와함께 시는 눈길로 인한 시내버스 연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버스 20대를 배치해 팔달로와 백제대로, 혁신도시 등을 운행토록 했다.

시는 출근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제설차 35대에 스키로더 11대와 그레이더 2대를 추가 투입해 밤샘



제설작업을 벌였다.

시는 전 직원을 투입해 취약지를 중심으로 제설작업을 실시하기도 했다.

여기에 주요도로 20개 교차로에 온누리교통봉사대와 모범운전자회의의 배치로 눈길 파리 물리로 인한 교통혼잡을 차단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 22일과 23일 이를 연속으로 직접 제설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백제대로와 팔달로, 기린로 등 주요 도로를 확인하기도 했다.

배회곤 도시건설안전국장은 “폭설과 한파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아영 기자

전북경찰청, '전문수사관 인증서' 수여식 개최

전라북도경찰청에 수사에 대한 각분야별 경력과 자격을 갖춘 전문수사관 인증서 수여식이 전달되며 앞으로 전북의 사건사고 전문수사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강광수 전북경찰청장은 지난 23일 경찰청 소문마당에서 전문수사관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올해 국수본에서 선발된 전북청 전문수사관은 형사과 3명(과장수사계 경감 이영삼, 과장수사계 경위 김용국, 강력범죄수사대 경위 이정욱), 사이버수사과 1명(사이버범죄수사대 경위 조

한구)을 포함해 완안경찰서 1명, 군산경찰서 7명, 부안경찰서 2명 등 총 14명이다.

분야별로는 변사사건 9건, 조직폭력 1건, 화재사건 1건, 현장감식 1건, 디도스 1건, 뽕소니사범 1건 등 총 6가지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현재까지 전북청은 총 203건을 인증 받은 167명의 전문수사관이 수사·형사·사이버·과학수사·교통조사 등 각 분야에서 활동 중에 있다.

전문수사관은 수사경과를 취득한 경찰관 중 해당 분야 근무 및 경력 분야



별 근무실적, 경찰수사연수원 전문 교육과정 수료, 학술대회, 기고 등 마일

리지 충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증한다. /김영태 기자

전주완산소방서, 하반기 감염관리위원회 개최

전주완산소방서는 불특정 다수의 환자를 이송하며 감염성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 구급대원의 감염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2022년 하반기 감염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감염관리 위원회는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및 현장에서 활동하는 구급대원들에게 전염성이 강한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감염관리 이행실태를 점검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질 높은 구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주요 개최 내용에는 '구급대원 건

강·안전에 관한 사항, 감염환자 이송 및 감염관리실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등 향후 코로나19 대응 방향, 국내 신종 감염병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관리 및 개선 필요사항 의견 청취' 등을 담고 있다.

김장수 전주완산소방서장은 “업무 특성상 각종 감염의 위험이 높은 현장 활동 대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대원들의 건강 확보가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되기에 감염 관리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